
제3연구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현황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개념화

홍애령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임수진

서울대학교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어젠다가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예술교육 실행계획은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과 맺은 국제적 예술교육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중 제2목표인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예술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시행된 지 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2011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문화예술교육사는 2010년 예술강사포괄제(현 예술강사지원사업)로 인해 양산된 예술강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 예술분야 유일의 국가자격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5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8.).

자격제도가 시행된 초반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TA(Teaching Artist)와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 공연자, 전시 기획자 및 관리자, 박물관 및 미술관의 큐레이터 등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직무군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8개 분야에 음악과 미술, 2개 분야가 더해진 총 10개 분야(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의 예술 영역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9년 11월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누적 18,466명, 2019년에만 2,778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문화예술교육사, 2019.11.26.). 이는 최다 취득자가 배출된 2013년(3,469명)에는 못 미치지만 자격취득 첫해에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이수자들이 대거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규명과 이에 따른 역량에 따른 교육과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전반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개발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2014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요목 개발연구」에서는 개정 2급 자격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기에 앞서 1급과 2급 교과목의 위계성 및 연계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직무 차원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김선아, 최은식, 김미남, 이효광, 2015). 첫째, 핵심직무의 차이로서 1급과 2급 모두 관리, 운영, 분석, 평가, 교수 업무를 추진하지만 1급은 기획 및 관리, 2급은 교수에 중점을 둔다. 둘째, 직무의 양적 차이로서 1급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수 영역을 포함하여 기획관리 영역과 연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파트너십 구축,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사업 마케팅 등의 추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포함하는 데에 비해 2급은 교수와 밀접한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분석, 평가에 한정한다. 셋째, 직무의 질적 차이로서 1급 교육과정 교수요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등급별 교과목의 위계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의도와 등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질적, 양적 내용 및 범위가 심화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박유신, 2017). 2014 개정 문화예술교육 2급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효하다. 물론 2015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전반에 자리 잡은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고려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이 공적으로 거론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한편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의 현장 의무 배치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의무 채용 등이 강화되고 있어, 실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와 직무역량에 대한 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초점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권영임, 차수정, 2015; 권정숙, 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의 운영과 평가(강익모, 2016; 박소연, 임채홍, 박상현, 이주연, 김서용, 홍성만, 2013)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이중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다룬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으며(김재웅, 2016; 박유신, 2017; 홍애령, 2015), 문화예술교육사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였다(강성룡, 이경화, 2012; 임학순, 선걸, 2012; 최종호, 2013). 더욱이 앞서 제시한 국제적인 예술교육표준인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더욱 미진하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있으며 직무역량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예비 및 현직 문화예술교육사가 인식한 직무역량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예비 문

화예술교육사의 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교육과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전문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와 현직 문화예술교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무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현황 및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내용분석, 심층면담 및 핵심집단토의(FGD)를 사용하였다. 각 단계별 연구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1> 단계별 연구추진

단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1단계 연구배경 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양성 현황 분석	문헌고찰, 내용분석
2단계 직무 및 직무과제의 이론적 개념화	선행연구 기반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정의, 서울어젠다 기반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제시	문헌고찰, 내용분석
3단계 직무 및 직무역량의 개념화, 범주화	예비 문화예술교육자 및 현직 문화예술교육사 20명의 의견수렴을 통한 5개 직무역량과 19개 하위요소의 개념 정의 및 범주화	심층면담, 핵심집단토의

2.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및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acei.arte.or.kr/) 및 대구예술대학교, 대진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중부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여덟 개 대학의 각 문화예술교육원의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였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교육과정관련 보고서, 교육과정 문서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시점인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문화예술교육사 연구 보고서와의 비교작업을 수행하였다.

3. 심층면담 및 핵심집단토의(FGD)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정리된 1차 직무역량자료의 내용타당도 검증

을 위해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10명과 2급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 및 핵심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 FGD)를 실시하였다. 전형적 사례선택을 통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13명, 평균 연령은 37.4세, 평균 전공경력은 15.9년이었다(<표 III-1> 참조).

<표 II-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구 분	성별	연령	예술 영역	전공경력	현직	면담유형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남	23	무용	7	대학생	FGD 1
	남	25	무용	9	대학생	FGD 1
	남	24	연극	3	대학생	FGD 1
	여	22	무용	11	대학생	FGD 1
	여	24	디자인	6	대학생	FGD 1
	여	36	연극	21	대학원생	심층면담
	여	46	국악	4	기반시설 강사	FGD 2
	여	60	국악	7	기반시설 강사	FGD 2
	남	32	국악	15	전통예술 공연자	FGD 2
	여	31	무용	12	전통예술 공연자	심층면담
2급 문화예술교육사	남	38	국악	20	대학원생, 예술가	FGD 3
	남	40	음악	24	대학원생, 예술가	FGD 3
	여	26	음악	13	대학원생, 강사	FGD 3
	여	61	무용	41	예술단체 대표	FGD 4
	여	38	미술	24	예술강사, 학원 강사	심층면담
	여	27	만화애니	12	예술강사	심층면담
	남	45	국악	26	전통예술 공연자	FGD 5
	여	57	국악	30	전통예술 공연자	FGD 5
	여	42	공예	23	기반시설 강사	심층면담
	여	51	국악	10	기반시설 강사	FGD 5

5회의 심층면담 및 5회의 FGD에서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와 직무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읽은 후 이에 대한 자유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을 중심으로 직무역량의 요소를 범주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교육사의 5가지 직무역량과 19개 하위요소의 개념 및 정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Ⅲ.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은 국외에서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졌다(Booth, 2003). 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예술강사’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전문예술교육가’로 번역하여 각각의 호칭을 사용해왔고, 두 호칭은 국가자격 제도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시행한 2013년 이후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통합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p.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활동근거와 위상을 재고하여 관련 인력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방법을 수립하고, 각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과 2급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교육과정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4년에 개정 공표되어 2016년부터 적용된 신 교육과정에 기반한 자격등급 및 교과목을 다루겠다.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등급 및 교육과정

2.1.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및 교육과정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은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기존 예술강사는 예외 적용).

- ①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혹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학교문화예술교육 혹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교육과정은 직무역량, 예술교육 전문성으로 교과영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5과목 이상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급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현장과 정책,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II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 참조).

<표 III-1>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5과목 150시간
(<https://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First.do>에서 참고)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90시간(3과목)
예술교육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II	60시간(2과목)

1급은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전공자 및 비전공자 중 2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자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 강사 중 연수 수료 시점부터 경력 5년 이상인 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5과목 이상 150시간) 취득 가능하다.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에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6년 1급 경력요건 세부기준 수립 연구, 2017년 1급 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2018년 등급별 교육과정 연구, 2018년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력 인정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 이수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 문제가 논의 중에 있어 자격과정이 개설되지는 않고 있다(문화예술교육사, 2019.11.22.).

2.2.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및 교육과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

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2급 교육과정은 직무역량,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5과목 600시간(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급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 개론, 예술 관련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예술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2> 참조).

<표 III-2>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15과목 600시간 40학점
(<https://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NewSecond.do>에서 참고)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및 학점
직무역량	-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전문성	- 예술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 ※ 전공자(문화예술 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450시간(30학점)

IV.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양성 현황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등급(1급, 2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표 IV-1>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지정기간: 2018.03.01.~2020.02.29.)
(<https://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First.do>에서 참고)

연번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이수 가능 분야
1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	무용, 음악, 미술
2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3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4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5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6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국악, 음악, 미술, 공예
7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05번지	연극, 사진, 음악,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8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무용, 영화

* 비고 : 대학 등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개설·운영하는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예시: 미술·디자인 교육론)

현재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은 <표 IV-1>과 같이 여덟 개가 운영되고 있다. 대구예술대학교, 대진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중부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여덟 개 대학의 각 문화예술교육원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각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에서는 예술 분야별 교수 역량 교과목으로 교육론, 교수 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세 가지를 각 예술 분야별로 개설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다(<표 IV-2> 참조).

<표 IV-2>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 역량 교과목
(<https://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NewSecond.do>에서 참고)

분야	교과목	분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비고 : 대학 등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개설·운영하는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예시: 미술·디자인 교육론)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은 지정기간이 가변적이고,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설여부도 예술영역별로 다르며, 시기별로, 교육원의 상황에 따라 매 학기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지정기관인 대학의 문화예술교육원은 수강신청 시 적정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을 폐강하는 경우가 있다.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경우, 2019년 2학기에는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등의 예술영역의 교육과정 이수자가 가능하지만 개설교과목은 각 영역의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두 과목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았다.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2019년 11월~12월 5학기에 각 예술영역의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두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호남대학교의 문화예술교육원은 2018년 4월~6월에 해당하는 2기 시간표까지만 공지되어 있다(<https://acei.arte.or.kr/information/eduInstitute.do>). 따라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각 지정교육기관의 개설 교과목과 개설 현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V.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및 직무과제의 이론적 개념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1.1. 예술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대표 직업은 예술강사였다. 2000년 ‘국악강사풀제사업’을 시작으로 등장한 예술강사들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대표하였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기획자, 행정가 및 실무진 등 전문 인력이 다각화되었으나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예술강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레로 이창준, 강성룡, 이상아, 정수경(2009)은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예술강사에 요구되는 32개의 핵심 역량과 이에 따른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는데, 각 예술 영역 분야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및 방법의 개발 능력, 파트너십 구축, 사명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을 제기하였다. 이기성, 강성룡, 김기혁, 서혜란(2010)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핵심역량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강사 핵심역량모델(ART 모델)로서 3개의 역량군과 9개의 하위 역량군, 23개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기하였듯이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강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기에 현 시점에서 해당 연구들을 그대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2.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및 역량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 분석(권영임, 차수정, 2015; 권정숙, 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의 운영과 평가(강익모, 2016; 박소연, 임채홍, 박상현, 이주연, 김서용, 홍성만, 2013),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이주연, 2015),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체성(김인설, 박철순, 조효정, 2014)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이 중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다룬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으며(김재웅, 2016; 박유신, 2017; 홍애령, 2015) 더욱이 문화예술교육사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였다(강성룡, 이경화, 2012; 임학순, 선걸, 2012; 최종호, 2013).

이중 임학순, 선걸(2012)은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개발방향 모색」 연구에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문화예술

역량(예술장르별 역량, 통합 장르적 역량), 교육역량(학습자의 특성 분석, 수업 설계, 조사 및 연구, 교육과정 설계, 교육방법론 개발, 강의 실행, 상담, 학습자 평가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실천 역량(기획, 운영, 관리)으로 구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강성룡, 이경화(2012)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25명, 기획관리실무자 9명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 네 가지 역할로 정의하고, 역량은 예술전문성역량 2가지, 교수역량 19가지, 관계 관리역량 20가지로 총 41가지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 밖의 선행연구는 기존의 예술강사 역량과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비교하며 제시하며 모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및 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강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직무역량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대표적인 역량 개발 기회였던 학교예술강사 의무연수가 2016년 폐지되고 현재는 희망 예술강사 및 관계자들의 선택연수만 남겨진 상황에서 자발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최보연, 유지연, 2019). 이에 다음 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규정한 연구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직무역량의 규명을 위한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정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의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사는 각 예술 영역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임학순 외, 2011). 이미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명칭 자체에서 예술가로서 직무와 교육자로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권정숙, 201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이들은 예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교수’ 활동에 참여하되, 기획, 진행, 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김선아, 최은식, 김미남, 이효광, 2015). 또한 예술계 국가공인자격으로서 엄밀한 교육, 평가체제 안에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체 홍보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표 V-1>과 같다. 여기에서도 각각의 직무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획, 운영, 교육, 평가 등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정의

저자	자료 명	발행처	정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길라잡이 홍보 브로슈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의 예술전공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통합문화예술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역할과 역량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김선아, 최은식, 김미남, 이효광 (2015)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요목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개개인의 학생들을 만나 예술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경험을 만드는 것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개발, 운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예술과 교육의 징검다리,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문화예술교육 연구 등입니다.
임학순 외(20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기획,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리, 문화예술교육 강의, 문화예술교육평가 등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문화예술교육사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의 직무역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는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등 각 예술영역의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고, 관련된 실습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표 V-2> 참조).

<표 V-2> 문화예술교육사의 세부 직종과 직무 정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p.15~16 참조)

세부 직종	직무 정의
국악 문화예술교육	국악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국악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연극 문화예술교육	연극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연극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연출, 제작, 감상, 놀이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디자인 문화예술교육	디자인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디자인 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디자인 제작, 작품 감상 및 해석, 생활 속의 디자인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사진 문화예술교육	사진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사진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사진촬영 및 카메라 조작, 작품이해 및 평가, 보도사진 촬영, 작품사진 촬영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무용 문화예술교육	무용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무용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 고전, 발레, 무용 감상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음악 문화예술교육	음악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미술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감상, 창작,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미술 문화예술교육	미술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연극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감상, 창작, 작품비평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공예 문화예술교육	공예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공예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목재, 석재, 점토, 금속 등의 재료와 공구를 사용한 공예품 제작, 감상, 작품기획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만화 문화예술교육	만화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만화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작품감상, 창작, 스토리 구성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	애니메이션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애니메이션 작화, 작법, 제작, 편집, 음향 삽입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영화 문화예술교육	영화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영화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작품의 이해, 창작, 감상, 영상제작, 촬영, 편집 등의 실습을 지도한다.
문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질적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조사·연구하고, 교수지도 방법을 개발·보급하는 업무를 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감성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소비층의 요구도 및 특성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콘텐츠, 예산, 일정 등을 기획하여 홍보, 장소섭외, 콘텐츠 확정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한다.

이상과 같이 그간 논의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종합, 정리하면,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학교 및 지역사회,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문화기반 시설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과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 및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자로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자신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교육대상자별(연령별, 직군별, 사업별)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수법 및 교수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예술 영역의 특정 기술이나 기능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 발달과 전인으로서의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자이자 예술가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자신이 맡게 될 세부 직종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일례로 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무용 체험을 통한 표현력 향상과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무용이론 및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며, 대상자별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 고전, 발레, 무용 감상 등의 실습을 지도하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p. 15-16).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 개성,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교육까지를 포함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것들을 탐색하고, 예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인문학적 소양교육이자 홀리스틱 교육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소양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러한 교육방법론을 적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홍애령, 2019).

3.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²⁾의 직무과제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제2차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예술교육 실행계획에 대한 선언이다. 2011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실천을 약속하였다 (<http://arte365.kr/?p=72382>). 이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의 의견, 발표 및 토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논한 국제적인 예술교육표준으로 볼 수 있다(홍애령, 박재홍, 2018).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세 가지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표 V-3> 참조).

<표 V-3>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http://arte365.kr/?p=72382>에서 참고)

목표 1	목표 2	목표 3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 접근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 확립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
<p>전략 1.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능력의 개발</p> <p>전략 2. 교육시스템의 건설적인 구조 변화</p> <p>전략 3.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시스템 수립</p> <p>전략 4.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축적</p>	<p>전략 1. 지역의 요구사항,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의 기준 개발</p> <p>전략 2. 예술교육 연수의 지속적인 시행</p> <p>전략 3. 연구와 실천 간의 상호작용</p> <p>전략 4.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의 협력</p> <p>전략 5.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 간의 예술교육 협력관계 시작</p>	<p>전략 1.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p> <p>전략 2.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을 위한 예술교육</p> <p>전략 3. 사회적 책무 및 통합, 문화 다양성,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p> <p>전략 4.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p>

위와 같은 서울어젠다가 채택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 2020년은 서울어젠다의 이행점검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때문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을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로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의 실천을 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서울어젠다의 각 세부 목표 및 전략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겠다.

3.1.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에 근거한 직무과제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목표 1은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예술과 타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목표 1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타학문간의 연계성을 탐색,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의 능력이 핵심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과 타 분야 및 타학문 간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예술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나 기술 및 지식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예술과 자신의 삶, 예술과 타 분야 및 타학문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는 간학문적 접근을 통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1의 전략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과제를 아래에 제안한다.

① 전략 1: 어린이, 청소년 및 평생학습자의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능력을 조화롭게 계발하는 바탕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 전략 1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는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교육학에서 재강조하기 시작한 리터러시 교육은 대부분의 학문 및 분야에서 파생되어 과학 리터러시, 수학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뮤지컬 리터러시, 피지컬 리터러시, 스포츠 리터러시, 댄스 리터러시 등으로 불리어지며 교육되고 있다. 예술 영역에서도 미술, 음악, 체육, 무용 등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무용의 경우,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핵심목표로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제시하였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윤진, 2013; 임수진, 2015b; 임수진 외, 2016, 2017; 최의창, 2011; 홍애령, 2015).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위한 무용 수업은 기존에 동작기술 습득에 경도된 수업방식을 넘어서 무용을 통해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용교육이다. 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안하는 댄스 리터러시는 과거의 무용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 무용을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하는 21세기 무용교육이다. 임수진(2016)은

댄스 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등 다섯 가지 자질이 함양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영역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무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표가 된다. 무용과 같이, 각각의 문화예술교육 세부영역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서울어젠다 목표 1의 전략 1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② 전략 2: 예술교육을 통해 교육 시스템과 구조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장려한다.

- 전략 2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로, 교육공학적 접근과 주제별 수업을 통한 초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융합된 ‘교육’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학습의 영역이다(양현미, 박은영, 전효관, 정은희, 홍진표, 2004). 교육의 핵심인 학습효과를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요소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구축된 교육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던 경향을 버리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식, 즉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주제별 수업을 통한 초학문적 접근을 제안한다.
- 예를 들어,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여덟 권의 통합교과서로 구성된다. 시간적 개념의 교과서 네 권(봄, 여름, 가을, 겨울)과 공간적 개념의 교과서 네 권(가족, 학교, 이웃, 우리나라)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주제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되고, 학생들은 ‘봄’ 교과서를 통해 봄의 자연현상, 봄을 소재로 한 시, 봄과 관련된 노래, 봄을 몸으로 표현하는 신체활동 등의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즉, ‘봄’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임수진, 2015a). 이것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③ 전략 3: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시스템을 수립한다.

- 전략 3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는 인간의 발달단계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교육 향유자는 예술교육을 통해 발달 단계별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 발달 및 성장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전략 1의 댄스 리더러시 교육의 경우, 유아기에는 신체성을, 아동기는 감수성을, 청소년기는 인지성을, 장년기는 사회성을, 노년기는 정신성 등을 강조하거나 상황 및 교육의도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댄스 리더러시의 요소를 활용하여 신체와 정신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려면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가적 자질보다는 교육가적 자질이 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인간 성장 발달단계별 특징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인간 성장 발달단계별 특징에 대해 숙지하고, 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세대 간 교육 시스템을 발달단계별로 차별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략 4: 예술교육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할을 축적한다.

- 전략 4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는 예술을 통한 리더십 발휘 기회 제공과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서울어젠다를 ‘실천’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이다. 이를 위해 예술교육을 통한 리더십 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예술교육의 다양한 가치 중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예술교육의 단계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사회성 중 개인조절력, 자기절제력, 배려심, 공감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고, 리더십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사의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은 필수적이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는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는 밑그림이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서울어젠다 목표 1의 전략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를 정리하면 <표 V-4>와 같다.

<표 V-4> 서울어젠다 목표 1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http://arte365.kr/?p=72382>에서 참고)

목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타 분야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함 -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과 타학문간의 연계성을 탐색,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전략 1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능력의 계발	리터러시 교육 관점으로 접근
전략 2	교육시스템의 건설적인 구조 변화	교육공학적 접근과 주제별 수업을 통한 초학문적 접근
전략 3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시스템 수립	발달단계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특징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략 4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축적	예술을 통한 리더십 함양과 사회적 가치의 강조, 창의적, 확산적 사고의 배양

3.2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2에 근거한 직무과제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목표 2는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을 확립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준의 심화 및 실행이 중요하다. 이에 목표 2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고안한 교육 프로그램의 의도, 기획, 실행의 과정이 연결고리처럼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 통합적인 능력이 고루 중요하고,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의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 2의 전략 다섯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전략 1: 지역의 요구사항,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을 위하여 합의를 통해 높은 기준을 개발한다.

- 전략 1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는 다지역,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각 민족의 특징, 즉 민족성을 인지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소양이다. 소양수준의 인지는 피상적인 정보와는 다르다.
- 한 예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을 단지 위치와 지명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앎’에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의 낙성대, 경기도의 행주산성, 경상남도의 통영 등 각 지역은 지역의 특색 및 특징,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다문화, 다지역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탐색하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탐색할 지역을 선정하고 탐색하는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 만일 경상남도 통영을 탐색할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식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스무고개 방식의 질문으로 유도해서 탐색할 지역을 맞춰보는 방식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큰 광장하면 생각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 광장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두 분의 동상이 있는데 누구인가요? 오늘은 그 중 한 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그 분과 그 지역에 대해 배워봅시다.”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지역 및 문화의 상황과 인프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합의와 기준을 통해 지역 및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② 전략 2: 교육자와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연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 2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교육 연수 참가를 통해 전문성 함양과 재교육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재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연수 강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예술강사들은 다양한 수업방식 및 독특한 교수법 등을 배울 기회를 얻기도 하고, 자신만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노하우 공유 시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준 높은 예술교육,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 참가를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의무적인 참가 시간 및 횟수를 늘리거나, 연수교육 참여율에 따라 전문인력의 커리어를 쌓는 차원에서 리워드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수교육 참여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함양과 재교육은 예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일시적인 교육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으로 발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

③ 전략 3: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천 사이의 상호교류를 장려한다.

- 전략 3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는 연구를 토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사업은 양적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구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발의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다. 이제는 연구된 결과물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실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사는 전문가 또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수업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임수진, 2016).

- 하지만 전문인력 수업의 노출 및 공개 없이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론과 실제 간의 간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천 사이의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업공개 및 연구 및 프로젝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가가 필요하다.

④ 전략 4: 학교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의 협력을 장려한다.

- 전략 4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와 교육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자신의 수업의 내용 및 방식을 학교 안 교육자 또는 학교 밖 기관 실무자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자에게 도움을 받을 사안은 요청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진행능력에 속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수업,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와 학교 안팎의 실무자 사이 소통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통의 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시간을 수업 시수에 포함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CoP)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교육자 및 실무자들과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연수를 활용해야 한다.

⑤ 전략 5: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 간의 예술교육 협력관계를 시작한다.

- 전략 5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협조 및 사회 다양한 조직의 실무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능력과 분석능력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업은 2005년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성장해왔다. 학교 안에서, 사회 속에서 발전해 온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향유자를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 전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는 사회 각 분야의 기관을 이해하여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서울어젠다 목표 2의 전략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를 정리하면 <표 V-5>와 같다.

<표 V-5> 서울어젠다 목표 2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http://arte365.kr/?p=72382>에서 참고)

목표 2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가 고안한 교육 프로그램의 의도, 기획, 실행의 과정을 연계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 통합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의 높은 질적 수준이 확립될 수 있음
전략 1	지역의 요구사항,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의 기준 개발	다지역,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 높이기
전략 2	예술교육 연수의 지속적인 시행	예술교육 연수를 활용한 전문성 함양과 재교육
전략 3	연구와 실천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실행 프로젝트의 연계
전략 4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의 협력	예술가와 교육자 CoP의 활성화 및 연계, 소통의 시간 부여
전략 5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 간의 예술교육을 위한 협력관계	학교장의 협조 및 사회 다양한 조직의 실무진의 관심과 협조

3.3.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3에 근거한 직무과제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목표 3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이 목표 3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에서부터 교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및 인류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사회적 가치는 조직의 건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이다. 사회적 또는 공적 가치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글로벌 시대에 마주하는 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교육학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핵심 역량으로 철학, 지식, 기술, 인성 4가지가 필요하다. 즉 문화예술교육사는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예술분야의 기술은 물론 전문지식과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인격적 품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 3의 전략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전략 1: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 전략 1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는 간학문적 접근의 통합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향유자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깊고 의미

있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발상을 해 내는 기회를 많이 접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창의성은 어떻게 발달되는가. 이질적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창의성이 발현된다.

- 예) - 과학혁명의 과정 속에서 과학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산업혁명은 예술에 어떻게 작동되었나?
- 사회혁명 속에서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 수학의 미적분은 예술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다시 말해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예술과 타 분야 및 타학문과의 관계성과 연계성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이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 또는 다양한 학문과 예술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과정과 교육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전략 2: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 전략 2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위한 예술향유의 기회를 확장 해 주어야 한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사는 '복지'의 개념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향유의 대상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 예) - 일반 시민을 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저소득층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
-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으로서의 예술
- 장애인을 위한 성취감을 경험하는 예술
-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예술 등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는 각 대상자의 심리적, 정서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인간다운, 보다 안정적인,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략 3: 사회적 책무 및 통합, 문화 다양성,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높인다.

- 전략 3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중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의 사회적 가치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먼저 리더가 체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 기회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성이란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 성격,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사회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교육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회성으로 협동, 배려, 대인관계 등을 강조해왔다. 이제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성’(예를 들어, 자기조절력, 감정조절능력, 인내하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등)을 강조함으로써 양면성의 사회성을 고루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④ 전략 4: 예술교육으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운다.

- 전략 4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상 능력, 예민한 지각 능력,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석 능력,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예술교육이 ‘평화’를 모티브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 지구적 도전과제로 어떠한 이슈를 다룰 것인지, 다양한 이슈들을 교육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그것들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시대적 문제 등 사회 속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예민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혜안(慧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서울어젠다 목표 3의 전략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역량 및 과제는 <표 V-6>과 같다.

<표 V-6> 서울어젠다 목표 3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http://arte365.kr/?p=72382에서 참고)

목표 3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과제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애 및 인류애적 관점에서 사회적 및 공적 가치의 강조가 중요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학적 관점의 교수역량이 핵심
전략 1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간학문적 접근의 교육 필요
전략 2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 위한 예술교육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예술향유의 기회
전략 3	사회적 책무 및 통합, 문화 다양성,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	내적/ 외적 사회성 함양과 사회적 가치의 강조
전략 4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공연 및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획, 글로벌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제공

VI.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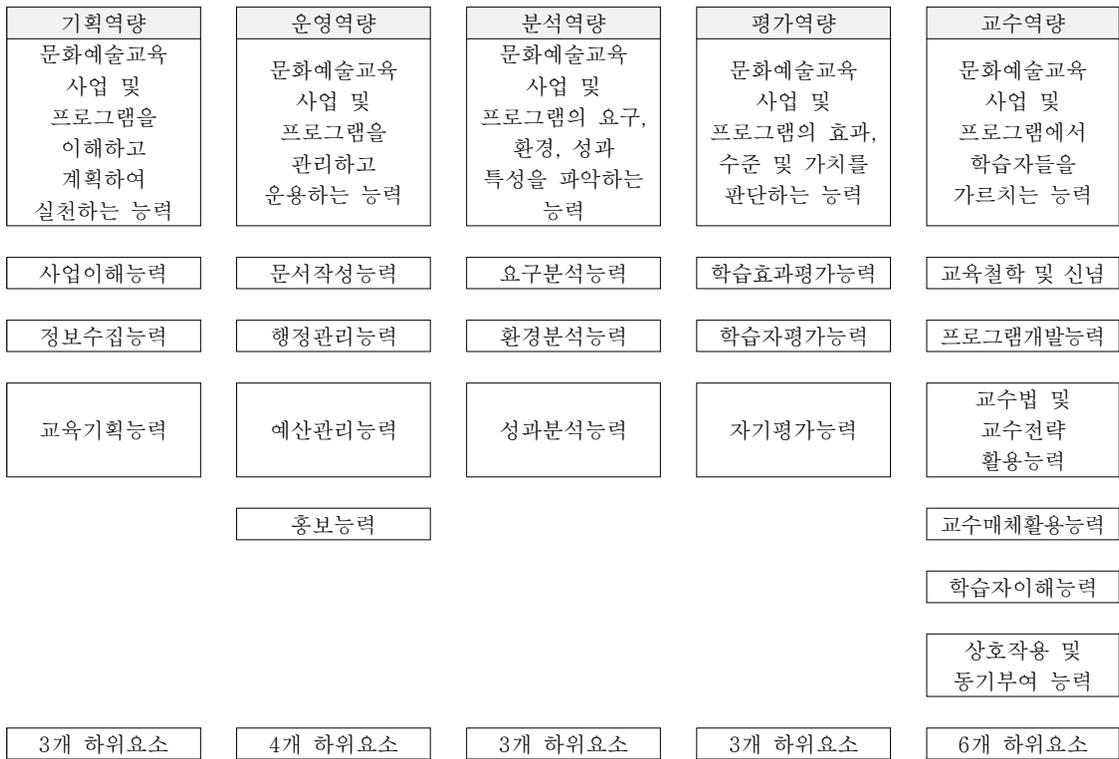
1.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범주화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심층면담 및 핵심집단토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정리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의 구성은 <표 VI-1>과 같다.

<표 VI-1>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개념 및 하위요소

개념	정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학교 및 지역사회,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문화기반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개 상위 직무역량>



<19개 하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은 “학교 및 지역사회,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문화기반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직무역량은 기획역량, 운영역량, 분석역량, 평가역량, 교수역량의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기획역량은 사업이해능력, 정보수집능력, 교육기획능력의 3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었다. 운영역량은 문서작성능력, 행정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홍보능력의 4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분석역량은 요구분석능력, 환경 분석능력, 성과분석능력의 3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평가역량은 학습효과평가능력, 학습자평가능력, 자기평가능력의 3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교수역량은 교육철학 및 신념, 프로그램 개발능력,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능력, 교수매체 활용능력, 학습자 이해능력, 상호작용 및 동기부여 능력의 6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1.1. 기획역량

기획(企劃)의 사전적 정의는 “일을 피하여 계획함”이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계획하여 실천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획과 관련된 역량들을 1차로 범주화한 후, FGD를 실시한 결과 기획역량의 하위요소는 사업이해능력, 정보수집능력, 교육기획능력으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개념 정의는 <표 VI-2>와 같다.

<표 VI-2> 기획역량의 하위요소 정의

하위요소	정의
사업이해능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철학 및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
정보수집능력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학습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능력
교육기획능력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능력

1.2. 운영역량

운영(運營)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이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획과 관련된 역량들을 1차로 범주화한 후, FGD를 실시한 결과 운영역량의 하위요소는 문서작성능력, 행정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홍보능력으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개념 정의는 <표 VI-3>와 같다.

<표 VI-3> 운영역량의 하위요소 정의

하위요소	설명
문서작성능력	문서의 양식 및 기준 등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행정관리능력	행정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능력
예산관리능력	사업 위탁기관의 예산 집행, 회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홍보능력	사업 및 프로그램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

1.3. 분석역량

분석(分析)의 사전적 정의는 “엮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이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요구, 환경, 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획과 관련된 역량들을 1차로 범주화한 후, FGD를 실시한 결과 분석역량의 하위요소는 요구분석능력, 환경 분석능력, 성과분석능력으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개념 정의는 <표 VI-4>와 같다.

<표 VI-4> 분석역량의 하위요소 정의

하위요소	설명
요구분석능력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환경분석능력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
성과분석능력	진행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하는 능력

1.4. 평가역량

평가(評價)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이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 매개자들의 수준 및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획과 관련된 역량들을 1차로 범주화한 후, FGD를 실시한 결과 평가역량의 하위요소는 학습효과평가능력, 학습자평가능력, 자기평가능력으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개념 정의는 <표 VI-5>와 같다.

<표 VI-5> 평가역량의 하위요소 정의

하위요소	정의
학습효과평가능력	사업 및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학습자평가능력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학습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자기평가능력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1.5. 교수역량

교수(教授)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이나 기예(技藝)를 가르침”이다.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획과 관련된 역량들을 1차로 범주화한 후, FGD를 실시한 결과 교수역량의 하위요소는 교육철학 및 신념, 프로그램개발능력,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능력, 교수매체활용능력, 학습자이해능력, 상호작용 및 동기부여 능력으로 정리되었으며, 각각의 개념 정의는 <표 VI-6>과 같다.

<표 VI-6> 교수역량의 하위요소 정의

하위요소	정의
교육철학 및 신념	문화예술교육의 철학 및 목표에 맞게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능력
프로그램 개발능력	학습자를 고려하여 각 분야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능력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능력	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한 교수법, 교수전략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능력
교수매체 활용능력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지도안, 시각적 자료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능력
학습자 이해능력	학습자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상호작용 및 동기부여 능력	학습자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는 능력

VI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예비 및 현직 문화예술교육사가 인식한 직무역량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양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전문성 개념 분석 및 직무를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학교 및 지역사회,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문화기반 시설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와 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능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자로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자신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교육대상자별(연령별, 직군별, 사업별)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수법 및 교수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예술 영역의 특정 기술이나 기능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 발달과 전인으로서의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자이자 예술가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사는 국제적인 예술교육 표준으로서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전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직 문화예술교육사가 인식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개념은 “학교 및 지역사회,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문화기반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직무역량은 기획역량, 운영역량, 분석역량, 평가역량, 교수역량의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기획역량은 사업이해능력, 정보수집능력, 교육기획능력의 3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운영역량은 문서작성능력, 행정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홍보능력의 4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분석역량은 요구분석능력, 환경 분석능력, 성과분석능력의 3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평가역량은 학습효과평가능력, 학습자평가능력, 자기평가능력의 3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교수역량은 교육철학 및 신념, 프로그램 개발능력,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능력, 교수매체 활용능력, 학습자 이해능력, 상호작용 및 동기부여 능력의 6개 하위역량으로 구분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현황과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개념 및 요소들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되어야 할 실천과제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의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자격취득자 수요 파악이 요청된다. 각 지역별 지정교육기관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예술 분야와 학기별 수업 개설이 상이한 관계로 각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설 교육과정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어젠다의 목표 및 실천전략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자신의 직무과제를 공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술강사, 문화예술 행정인력, 기획자 등 실무진 중에서도 서울어젠다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인식을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에 이를 적용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일례로 서울어젠다를 기반으로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에 관해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서울어젠다의 지속적인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에 근거하여 역량강화 연수 및 보수교육 등이 추진되어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사는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특별연수 및 특강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뛰어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수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 운영, 분석, 평가, 교수 영역별 내용을 구성한다면 연수 및 교육의 연계성과 특수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에 근거하여 예비 및 현직 문화예술교육사가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부족한 측면을 더욱 개발하고 뛰어난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고 피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출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어젠다와 같이 중대하고 국제적인 예술교육담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은 많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점 문화예술교육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수업사례, 기획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논의하는 세미나 등이 마련된다면 더욱 현장감 있는 전문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